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6월 29일 (제 1312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걸

네 의를 드러내지 마!

“아버지, 귀신이 요동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구에서 사역하는 아들이 내게 묻는다. 나는 그에게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눈동자가 심하게 요동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단다. 그런데 귀신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손대면 안 된다. 사고 날 수 있다. 네 의를 드러내려고 억지로 축사하면 절대 안 된다.”

사실 목회 초에 내가 한 실수가 있기에 아들에게 더욱 신심당부한 것이다.

기도원 집회 중에 귀신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성도를 밀어 넘어뜨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는 너무 놀라 얼음처럼 몸이 굳었다. 곧 정신을 차린 나는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려 한 시간이 넘도록. 단 아래 있던 성도들은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병자를 위해 그렇게 우는 줄 알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라고들 말했다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호흡이 돌아오게 하셔서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나는 제자들에게도 귀신이 드러나 요동하지 않을 때는 안수하지 말라고 신심당부한다. 잘 익은 감은 손만 대도 툭 떨어지지만, 생감을 떨어트린다고 흔들다가는 가지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나가던 주의 종들이 왜 넘어지는 줄 아는가?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서 내 의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요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내 것인 줄 착각하고 교만을 떨다가 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2)고 하였고, 교만의 결과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16:18)고 하셨다.

사도 바울처럼 변질되지 않고 늘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일생을 살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또다시 절감합니다. 우리가 노랑진 기도회나 각 지교회에서 이번 멕시코(Mexico) 마따모로스(Matamoros) 집회를 위해 합심해서 거의 두 달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이시대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 귀국하시는 날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검색해본 마따모로스 지역에 대한 정보는 40도를 넘나드는 고온다습한 날씨와 불안한 치안 상태였기에 야외집회로 계획된 이번 집회를 위해 무엇보다 날씨를 두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와보니 전혀 예

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리케인의 진로를 바꿔주셨습니다. 집회 전날 폭우가 내리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위기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따모로스의 갑박한 영혼들을 위하여 무사히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방언과 방언통역이 터지는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이번 마따모로스 집회 역시 오전 목회자 세미나와 저녁 집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텍사스(Texas)주 최남단 멕시코 국경에 인접한 작은 도시 브라운스빌(Brownsville) 공항에 도착하여 집회를 주관한 헤라르도(Gerardo) 목사님과 마따모

로스가 방문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늦은 밤이지만 그곳을 찾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기도해주셨습니다. 또한 주최 측에서 준비해준 스위트룸보다 기도 방해되지 않는 구석방에 들어가셔서 하루 7시간, 오직 기도에만 전념해주셨습니다. 항상 목사님의 해외사역에 대해 기대하는 한국의 성도들이 있기에 일본일조라도 허투루 보내지지 않는 목사님의 각오와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의 은혜로



2025 멕시코 마따모로스 집회 광경

상치 못했던 허리케인(Hurricane)이 멕시코 서부를 강타하고 북동쪽으로 진행하는 중이라 이곳에서도 모두가 이 초특급 태풍 허리케인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허리케인의 진로가 마따모로스를 관통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허리케인이 이 도시를 관통하게 되면 야외집회는커녕 아예 집회 자체가 무산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집회 주최 측은 사전에 야외 집회를 취소하고 시립농구장을 급히 임대하여 실내집회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내에서 한다고 해도 태풍이 휩쓸게 되면 누가 집회 장소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합심기도와 이곳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

의 기도를 받으시고, 즉시 육로로 국경을 통과하여 마따모로스에 도착하였습니다. 멕시코로 들어가는 길은 거의 프리패스로 통과하는 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대쪽 도로는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차량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파라과이 엔카르나시온(Encarnacion)을 방문할 때 지났던 아르헨티나(Argentina)와 파라과이(Paraguay) 국경에서 본 풍경과 흡사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면 국력의 차이가 빛나는 일인지라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가 강해야 한다면 안보와 경제에 대해 강조하시는 이유를 피부로 느끼게 되는 장면입니다.

헤라르도 목사는 먼저 이번 집회를 위해 연일 100여 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모

집회를 주관한 헤라르도 목사를 만나 뵈었습니다. 목사님은 늦은 밤이지만 그곳을 찾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기도해주셨습니다. 또한 주최 측에서 준비해준 스위트룸보다 기도 방해되지 않는 구석방에 들어가셔서 하루 7시간, 오직 기도에만 전념해주셨습니다. 항상 목사님의 해외사역에 대해 기대하는 한국의 성도들이 있기에 일본일조라도 허투루 보내지지 않는 목사님의 각오와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의 은혜로



목회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



마따모로스 집회를 위한 기도모임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곁에 두고 싶어하신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8:11~19)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워낙 바쁘다보니 자주 시간을 내지 못했지만, 어쩌다 어머니께 가면 배개를 내놓으며 “피곤하지? 여기 누워라.” 하시며 제 옆에 바짝 다가와 그간 밀린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뭘 사다드려서 좋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 옆에 있는 것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다 약속이 있어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하면 “벌써 가게?” 하시며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옆에 있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신지라 딱 이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엡5:10)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후5:8~9).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것인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신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히11:5)? 에녹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에녹 때문에 기뻐했고, 계속 동행하다보니 아예 이 땅을 벗어나 천국까지 이탄 것입니다(창5:24).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3:17).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첫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날이 서늘해지면 아담을 찾아가 그와 거닐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출29:46).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신 것도 그 때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도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막3:14).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하늘에서까지 우리를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합

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계21:3). 너무 소박한 소원이지만 없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시라니...

그런데 이 소박한 하나님의 소원을 인간들이 무참하게 깨버렸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도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나님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신8:14). ‘또 떠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요6:67) 하셨겠습니까.

자고로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와 나을 때 마음이 다른가 봅니다. 위급하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얻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신8:12~13) 하나님 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분 이해합니다. 병들었을 때나 사업이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성전 맨 앞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던 자들이 나음을 입고, 문제가 해결되고, 좀 살만하고 배부르면 슬슬 뒷전으로 물러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안 보이는 경

우를 많이 봤거든요. 뭐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아예 하나님을 떠났을까봐 안타깝습니다. 누가 준 건데, 누가 치료해줬는데 정작 주신 분을 멀리하고, 주신 것만 가지고 떠나다니요.

웁이 왜 위대한지 압니까? 웁은 복을 받았을 때나 복이 떠나고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마귀란 놈이 하나님 앞에서 웁에 대해 “웁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욥1:9)라고 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웁에 대해 자랑하

지 마세요. 그가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신 그런 겁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그런지 시험해보라고 해서 그것을 다

빼앗아봤는데도 그는 여전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욥1:21)라며 하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바로 웁과 같아야 합니다. 주신 것 때문에, 주실 것 때문에 하나님 곁에 알짱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상황 여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분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갈라

놓고 싶어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쐬기를 박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장작도 쐬기를 박고 내리치면 갈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쐬기는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이성이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리칠 때 쐬기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나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쐬기는 안 박혔나 늘 살피고, 혹 박혔으면 즉시 빼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신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하고 나를 살피야 합니다.

가끔 고3 학생의 부모들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아이가 고3인데, 학원이 주일에도 계속되는데 빠지면 못 따라가니까, 일년만 주일에 학원 다니면 안 되나요? 대학 붙으면 열심히 할 거예요.”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 년 후에 대학 붙으면 정말 그 자녀가 교회에 잘 다닐까요? 아니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고 말씀했지요? 왜 ‘영혼 잘 됨’이 먼저 일까요? 범사에 먼저 잘 되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보다 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요? 어디 좋은 대학 가는 것뿐이겠습니까? 범사에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놓는 것들을 일체 배설물로 여겨 버린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입니다(시73:28).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하시기 때문입니다(약4:8).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면 영·혼·육에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탁하건대, 부디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늘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곁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6:8).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자가 되자

가끔 고3 학생의 부모들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아이가 고3인데, 학원이 주일에도 계속되는데 빠지면 못 따라가니까, 일년만 주일에 학원 다니면 안 되나요? 대학 붙으면 열심히 할 거예요.”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 년 후에 대학 붙으면 정말 그 자녀가 교회에 잘 다닐까요? 아니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고 말씀했지요? 왜 ‘영혼 잘 됨’이 먼저 일까요? 범사에 먼저 잘 되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보다 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요? 어디 좋은 대학 가는 것뿐이겠습니까? 범사에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놓는 것들을 일체 배설물로 여겨 버린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입니다(시73:28).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하시기 때문입니다(약4:8).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면 영·혼·육에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탁하건대, 부디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늘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곁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6:8). 할렐루야!

가끔 고3 학생의 부모들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아이가 고3인데, 학원이 주일에도 계속되는데 빠지면 못 따라가니까, 일년만 주일에 학원 다니면 안 되나요? 대학 붙으면 열심히 할 거예요.”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 년 후에 대학 붙으면 정말 그 자녀가 교회에 잘 다닐까요? 아니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고 말씀했지요? 왜 ‘영혼 잘 됨’이 먼저 일까요? 범사에 먼저 잘 되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보다 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요? 어디 좋은 대학 가는 것뿐이겠습니까? 범사에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놓는 것들을 일체 배설물로 여겨 버린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입니다(시73:28).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하시기 때문입니다(약4:8).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면 영·혼·육에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탁하건대, 부디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늘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곁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6:8). 할렐루야!

가끔 고3 학생의 부모들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아이가 고3인데, 학원이 주일에도 계속되는데 빠지면 못 따라가니까, 일년만 주일에 학원 다니면 안 되나요? 대학 붙으면 열심히 할 거예요.”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 년 후에 대학 붙으면 정말 그 자녀가 교회에 잘 다닐까요? 아니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고 말씀했지요? 왜 ‘영혼 잘 됨’이 먼저 일까요? 범사에 먼저 잘 되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보다 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요? 어디 좋은 대학 가는 것뿐이겠습니까? 범사에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놓는 것들을 일체 배설물로 여겨 버린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입니다(시73:28).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하시기 때문입니다(약4:8).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면 영·혼·육에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 객원컬럼 ::

받은 은혜를 일평생 귀히 여겨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된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사심과 같이 영원히 살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능력을 얻고, 이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면류관을 쓰며 세세무궁토록 왕 노릇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허락받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 받은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태를 느끼는가? 은혜에 대하여 실증을 느끼고 이를 지난 것으로 생각하는가? 과거 은혜를 받았지만 후에는 그 이상의 욕심을 부려 타락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를 에덴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두셨다. 그것은 인간이 받은 최고의 영광이요 권리였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보필하며 사모함으로써 여자의 임무가 완성되었다. 이것이 여자가 받은 축복이요 은혜이다. 그런데 마귀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 권태를 느끼도록 유도하여, “너는 여기서 평생토록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동산지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돼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며 마귀는 이렇게 자기 직분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하고 그 직분 이상을 넘보게 만들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다. 마침내 하와는 자기의 직분에 대해 권태를 느끼고 그 이상을 넘보고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오늘

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이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천사라도 그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이상을 바라보아 사단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천사의 직분을 떠나서 ‘나도 못별 위에 올라서 보좌를 그 위에 두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며 그 이상을 요구하여 즉시 사단이 되고 만 것이다. ‘복’이라는 말의 원뜻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으로, 은혜받은 사람을 말한다.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주께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기 위함이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 받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요, 명예요, 축복이요, 재산이다.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그 이상은 없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도 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하며 좌절하고 은혜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끝내는가? 그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받은 은혜로 충만하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만 한다(히6:4~6).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빛과 소금 ::

감사

아이를 키우며 깨닫게 된다. 한 아이가 스스로 걷고, 먹고, 화장실을 가고 어엿한 성인이 되기까지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사랑과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도움 속에서 자라며 여러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다 보면 감사는 서서히 흐려지고 어느새 불평과 비교가 우리 삶을 채우기 시작한다. 나 또한 그런 순간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평범한 일들을 왜 나는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만 얻을 수 있을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으로 투정을 부렸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나로 하여금 더 귀하게 여기게 하고,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아침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 눈 부신 햇살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일상,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 우리 아파트 구석구석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 아이들을 품고 가르쳐주시

는 모든 선생님들...,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기적이며 선물이다. 요즘 나는 식사 전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을 조금 더 다잡게 된다. 이 한 끼의 밥상 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는지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씨를 뿌리고 정성껏 기른 농부들, 깨끗이 손질하고 포장해 유통해준 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 위에 햇볕과 비와 바람을 적절하게 보내셔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떠올릴 때 감사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된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방부제’라고 늘 말씀하신다. 감사는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지키며, 무너져가는 삶의 균형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 혹시 감사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한 걸음 멈춰 서서 우리 일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잊고 지냈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을 되찾아보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송지혜 집사
hello-english@naver.com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분 이름은 이초석
주님 주신 사명 위해 또 먼 길 떠나신다네
삼십 중반 주님 종으로 불들려
바람같이 사십 년 세월 훌쩍 지나
그 연륜 지구촌 곳곳에 깃발처럼 휘날리고
훈장처럼 빛나누나
이제는
열매와 향유로 잠시 쉬어가도 되련만
너 아니면 사람 없으라 하시는
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 다잡고 또다시 먼 길 떠나신다네
그분 이름은 이초석
우리 목사님!

김종일 장로

::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의 지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어느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된다는 것이다. 모순과 같은 딜레마가 많다는 것이다. 뭐 성경을 배우는 단계이다 보니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성경을 배우는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미리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한다. 총회장 목사님은 ‘이해하고 순종하려 말고, 순종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신다. 맞다. 순종을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 신앙의 질이 확 달라진다. 영적 안목으로 믿고 순종하다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은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로부터 우리나라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될 때 움직이려는 자세는 참 불손하다. 은혜에 감격하여 말없이 먼저 순종하는 것과 무수한 논쟁의 끝에 이해될 때 순종하는 행위는 마치 데칼코마니 그림과 같다. 양쪽 다 똑같은 행동이지만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 불가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교리’라는 화두를 성경을

통해 투 트랙으로 던지신다. 똑같은 성경의 진리 앞에서 인간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시는 것!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다. 사실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육의 눈으로만 보면, 모순덩어리로 보인다. 성경을 정말 인간이 썼다면 영업에 방해되는 항목들을 다 빼야 맞다. 삼위일체 교리, 예수의 신성 문제, 동정녀탄생, 십자가 대속교리, 구원교리, 창조교리, 선과 악의 부조화 문제... 등등, 너무 많은 난제들이 신앙의 확실성을 괴롭히는 듯하다. 그런데 불교나 천주교의 교리를 보면,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교리로 사람을 끄덕이게 만든다. 끝까지 가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구조, 이게 바로 철학의 방식이다(골2:8). 기독교의 교리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사고구조와 맞지 않는다. 이해, 납득, 공감에 잘 안된다(고전1:18). 인간이 제조하여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고백으로 남겨놓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럴 때, 목이 곧은 우리의 완악한 행동을 항복시키신다.

송직화 목사

::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 ::

:: 참된 깨달음 ::

모방은 제2의 창조다



마르코 목사 부부



라미로 목사 부부

하나님은 집회 때마다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 일행에게 은혜를 주시곤 한다. 이번 멕시코(Mexico) 마따모로스(Matamoros) 집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셨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마르코(Marco Antonio Ruiz, 60세) 목사. 집회 첫날부터 마르코 목사 부부는 맨 앞에 앉아 은혜를 받는 모습이었더니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목사님이 그들을 발견하고 단상 아래로 내려가셔서 머리에 손을 얹자 갑자기 요동하다 쓰러지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그들을 단상으로 끌어올리라 명하셨고, 그런 식으로 단상에는 여러 남녀 종들이 올라와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다. 단상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마르코牧사는 목사님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로 충만한 모습이였다. 목사님은 그가 누

구인지도 모르셨기에 질문하기 시작하셨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나?”
“30년 되었습니다.”
“목사인가?”
“그렇습니다.”
“목회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
“12년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보다 진실된 종이 되길 바란다. 거짓을 죽여버리고 매사 진실한 자세로 목회해야 한다.”
마르코 목사님은 크게 깨닫는 모습이었고, 이튿날 아침, 부부가 함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목회를 시작할 때 괴한으로부터 다리에 총격을 받아 출혈로 사경을 헤맨 경험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현재 100여 명의 성도를 이끌고 있다. 그는 항상 큰 목회를 하고픈 꿈을 갖고 있었다는데, 어느 날 사모가 꿈을 꾸었다. 남편이 큰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강단이 몰려와 교회를 축대밭으로 만들더라. 그래서 남편에게 큰 교회는 꿈도 꾸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호히 말씀하셨다.
“그 꿈은 그런 뜻이 아니다. 꿈을 사사로이 품면 안 된다. 당신이 큰 목회의 꿈을 갖고 있으니까 악한 것들이 훼방하는 것이다.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여 성령충만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부정을 몰아내고 꿈을 향해 달려가면, 당신은 반드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할 수 있다.”
나는 어제 당신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 내가 이 먼 나라까지 온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나는 할 일을 한 것이다. 당신에게

조언하는데, 모방은 제2의 창조다. 내 설교를 듣고 요약해서 설교하는 습관을 가져보라. 내 제자들 가운데도 이 방법을 써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진실해야 한다. 진실한 지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 나를 만나게 해준 헤라르도(Gerardo) 목사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을 도와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오늘 내가 당부한 것들을 잘 지켜 행하면 당신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마르코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이어서 진행되는 미국 매캘런(McAllen) 집회에도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찾아왔다. 이곳에서 가까운 도시 레이노사(Reynosa)에서 찾아온 라미로(Ramiro Hernandez de la Garza, 58세) 목사였다. 그는 먼저 인사를 청하고는 합석하여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놀랍게도 목사님의 저서 “의욕을 상실한 자에게서 지휘봉을 뺏어라”를 두 번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6개월간 설교했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부터 교회가 배가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책을 만들고 번역한, 그리고 출판한 일꾼들, 문서선교를 담당하는 이들이 들으면 가장 보람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 소개한다.
목사님은 그의 간증을 듣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뻐하셨다. 무엇이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여 현장에서 실상으로 성취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공한 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모방하고 실천하는 겸손한 자세야말로 성공의 비결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간증이 아닐 수 없다.

한은택 목사

:: 성경에서 배운다 ::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책

올해 중학생이 된 딸아이에게 매일 일정 시간 말씀 묵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중학교의 낮은 환경에다 공부 양도 늘어나 바쁘겠지만,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이고, 매일 묵상이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초등학교 때 이벤트성으로 성경 일독을 했던 경험이 있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자주 나누어 왔지만 ‘매일’이라는 조건과 막 사춘기에 접어든 만큼, 마음이 힘든 모양새였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며칠 후, 아침에 일어난 딸아가 어젯밤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꿈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메시지에 본인도 놀랐고, 저희 부부도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이제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지인이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성경’을 말합니다.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 설사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더라도 이처럼 삶의 모든 갈래를 담은 책, 복잡한 서사가 오류 없이 담긴 책을 본 적이 없다고 답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독교인은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고 믿는지?’ 묻습니다. 저는 “인간의 책은 3~4명 내외에 사람들이 만들어도 각자의 논리가 서로 맞지 않거나 앞뒤의 흐름이 엇갈리는 문제를 보인다. 하지만,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 동안 다른 대륙에서, 다른 시대를 살고, 심지어 만난 적도 없는데 모두 같은 메시지를 관통하고 있다. 또한, 66권 각 책에 상호 연결된 말씀만

6만 3천여 개, ‘예언과 성취’의 패턴이 모두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이 각 저자에게 임해서 쓴 게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조합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옳은 길을 분별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함에 있어서 바른 것을 구하려면 역시 말씀의 가르침이 없이는 안됩니다. 바쁜 시간, 어려운 환경이 있겠지만 반드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사34:16).

하인명 집사

십일조 20년의 중간점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예배와 기도, 그리고 십일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십일조는 만사형통의 열쇠이며, 십일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신혼 시절 빛을 내어 전셋집을 얻었고, 월급은 카드 값과 대출금을 갚고 나면 항상 빠듯했습니다. 때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저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도 십일조만큼은 반드시 먼저 드렸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받은 첫 월급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고, 이후 20년 동안 매달 십일조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 기록은 교회와 국제청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세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 되었고, 가정을 책임지는 무게를 느끼며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복을 넘치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수입은 첫 월급의 몇 배로 늘었고, 부족함 없이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가족 모두가 큰 병치레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이 한 일이라고는 오직 성경과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십일조를 빠뜨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하신 유일한 명령입니다. 지난 20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십일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송명국 집사

songmkook@naver.com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랑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랑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533. 9191